

1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6

가정예배

에레미야 · 빌립보서

골로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충현의 만나

2006

가정예배

예레미야 · 빌립보서

골로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2006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③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④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저 가게 하소서.
- ⑤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⑥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눅 15:18)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말뿐이고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롬 5:12).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요일 1:9).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회개 없이는 죄 사함의 은총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6년 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설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유다의 위선적인 예배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에 의식적으로 매우 성대하고 화려하게 드러진 성전 예배가 겉모습과는 달리 가증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타락했고, 거짓된 신앙으로 그들의 삶마저도 부패하였음을 지적합니다(9,10절). 이스라엘의 예배는 바알에게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위선적이며, 가증스러우며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예배 처소가 온갖 악행자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심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악행하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죄를 용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롬12:1,2).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 외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 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신령한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들로 인해 심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더욱 큰 것은 유다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무런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21,22절). 길르앗은 요단 강 동편 곧 모압의 북쪽에 있는 고산 지대로 유향의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창 37:25). 그 유향의 약효가 탁월하여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탁월한 치료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있더라도, 포로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서 다양했는데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마9:35). 문둥병자, 혈루병자, 귀머거리, 앓은 병이, 소경, 간음한 여인까지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그 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 안식과 참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쉬게 하리라”(마 11:28)

기도 제목 ① 우리 인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그 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거짓된 예배와 삶을 살고 악을 행하는 데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7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악의 길에 빠진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이 마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그들을 제련하겠다는 것입니다(렘 6:28,29).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깨끗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공의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셨습니다(벧전4:12,1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위암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모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방 열국들이 섬기는 우상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와 같은 자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과 권능의 크심을 찬양하였습니다(6,7절).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우상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크게 생각하여 그 앞에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실 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이름과 권능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열방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열방의 왕'이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왕들의 왕'인 것입니다. 따라서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로부터 칭송과 충성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계 4:11, 7:12). 우리도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주를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속주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특히 아직도 인간의 우상을 좇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계 17:14)

기도 제목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와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긍휼을 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10:23-25).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냉담합니다(11절). 이처럼 예레미야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집스럽게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이 극도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를 단절한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이 막혔던 담을 헐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길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도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할 때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범하지 않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살해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무고히 박해를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오랜 의문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1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인데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는 그분이 의로움과 모순되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저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욥과 하박국이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회복을 통해(욥 42:10-17), 하박국은 하나님의 해답을 듣고(합 2:4) 신앙의 문제를 해결 받았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악은 멸망하고 선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는 인류 구속이라는 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땅에 구속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날에 공의가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

기도 제목 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2006년도 단기선교 계획과 CMTC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경고하면서 한편으로는 간곡한 어조로 회개를 권면하였습니다. 교만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유다에 닥쳐올 참담한 상황을 예견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15, 16절). '들을찌어다'와 '귀를 기울일찌어다'는 비슷한 동의어의 반복으로 간곡한 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촉구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시기는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입니다. 이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회개의 시기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깝워서 외치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유다는 멸망의 징조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만을 좇아가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진정한 통회를 한 후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마 13: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갈 때 회개하는 자리에 먼저 앉게 하소서.
② 주일을 기도로 온전히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유다에 임한 대기근은 유다 전역을 뒤덮은 처참한 재난이었습니다(1-6절). 기근으로 인하여 유다 전역에는 마실 물이 고갈되었고(3절), 농경지가 마르다 못해 갈라졌으며(4절), 생명력이 강한 야생 동물들조차 먹이를 구하지 못해 기진하게 되었습니다(5,6절). 결국 유다 전역은 사람이나 생물이 살만한 곳이 전혀 못 되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기근이 임하자 유다 백성은 성문으로 나아와 땅에 주저앉아 절규하며 물을 구하였습니다(2절).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 그 자체가 아니라 물을 거둬가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진실로 유다 백성은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갈 수 있다고 자만하며 온갖 죄악을 부끄럼 없이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렘 2:13).

이러한 가뭄은 유다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극심한 것이었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7-22절). 당시 깊은 죄악의 병을 앓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위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더불어 동족의 죄에 대한 뼈아픈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드린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바로 죄인 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렘 14:9)

기도 제목 ①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되심을 고백하고 따라가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예배와 말씀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유다를 위해 예레미야는 거듭거듭 기도를 드렸습니다(14:7-9, 13, 19-22절).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노’(No)요, ‘네버’(Never)였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의 대표자인 모세와 사무엘이 매달린다고 할 지라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씀합니다(1절).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사망과 칼과 기근과 포로의 운명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2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6절).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변(不變)의 것임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마치 흙처럼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꺾여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꺾이지도 아니하였건마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10절).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할 것’(20절)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이것이야말로 모든 위로의 핵심이요 복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렘 15:21)

기도 제목 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 기도회에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계신 위임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행위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첫째, 자식을 두지 말고 독신 생활을 할 것을 명하십니다(2절). 둘째, 상가집 방문을 금하십니다(5절). 셋째, 잔치집 참석을 금하십니다(8절). 선지자 자신의 생활의 여러 면들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임박한 재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차 유다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곧 유다 사회가 붕괴할 것을 암시합니다.

본문 16,17절에는 심판의 한 단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상태에서(17절), 이방 대적의 칼날은 마치 고기를 낚시하는 어부처럼, 새를 사냥하는 포수처럼 날날이 유다 백성을 사냥할 것입니다(16절). 그런즉 그때에는 오히려 처자식이 없는 것이 낫지 않겠으며, 과연 그때에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으며, 또한 기쁨의 소리인들 귀 씻고도 찾아 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 행동 속에 담긴 의미를 바로 깨달아,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킴이 마땅했습니다. 어느 때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하는 법입니다. 선민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킬 목적으로 심판의 채찍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더욱 온전히 십자가만을 붙들도록 채찍을 드시고 냉엄히 징계하십니다(히 12:5-13).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렘 16:20)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유다의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닌, 마음 판과 제단 뿔에 기록되었습니다(1절). 따라서 변명도 부인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죄악에 따른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살길은 없는가? 살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7절).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말씀의 생명수로써 영육간의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과 혈과 육 곧 세상에 뿌리를 박고 있는 자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5절). 그들의 운명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6절). 그것은 무익한 나무로 땀감 이외에는 달리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성을 의지하고 쫓는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다 뿌리를 박고 있는 자들은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들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백성들의 조롱과 멸시가 뒤 따르자, 선지자는 탄원의 간구를 드립니다(12-18절).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은 선지자는 다시금 일어나 안식일 성수의 메시지를 힘차게 외칩니다(19-27절). 따라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명하고 계신 안식일을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바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내가 낫겠나이다"(렘 17:14)

기도 제목 ① 하늘에 뿌리를 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② 요일별로 진행되는 직분자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유다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비유로 삼아, 진흙 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쳤습니다(6절).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좇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7-11절).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유다 백성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 참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완악해져 가기만 했습니다(12절). 이제 하나님은 그들 백성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17절). 정녕 생명과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등을 돌린 인생에게는 오직 수치와 절망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칠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땅은 철저하게 황폐화되고, 후일 사람들은 그곳을 보며 놀라고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16절). 무서운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심판의 날까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그 날에는 오직 무섭고도 엄중한 심판의 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렘 18:6)

기도 제목 ① 진실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유다의 악한 왕 이하스와 므낫세 이후로, 예루살렘 성을 남쪽에 위치한 힌놈 골짜기는 우상숭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골짜기에 '도벳'이란 제단을 쌓아놓고, 심지어 어린 아이를 불살라 이방 우상에게 바치는 가증한 물렉 숭배 및 바알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곳에서 오지병을 깨뜨리면서(10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깨뜨려진 오지병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자의 종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복받고 잘 살기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복과 생명을 빌던 곳이 바로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6절). 우상, 그 자체가 '헛된 것(Nothing)'이니, 그것을 섬기고 좇은 자의 운명이 이와 같이 비참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선지자가 그토록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구속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목을 뺏뺏이 하고 제 욕심을 좇아 부지런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명예를 누렸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철저한 파멸로 인하여, 조롱과 수치와 모욕만이 되돌아왔습니다(8절). 바로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받을 보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진 오지병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복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듭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갈 5:22-24).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렘 19:3)

기도 제목 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② 모든 새 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던 당대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합니다(19:14,15). 그러자 성전 책임자인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매질하고 착고를 채워 옥에 가두었습니다(1,2절). 다음 날 예레미야는 풀려나자 즉시 바스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스홀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3-6절).

예레미야는 이같은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모두에게 배척당합니다. 듣는 자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더욱이 죄악에 눈 먼 자들에게 있어 그러한 메시지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조롱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직을 그만둘까 하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잠시 뿐! 중심에 불타는 듯하고 골수에 사무치는 듯한 사명 의식을 억누를 길 없었습니다(9절). 답답하여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변민이었지만,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11절). '두려운 용사'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인이 악인을 누르고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참 사명자는 고난 중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것 같아서"(렘 20:9)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② 2006년을 위한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시드기야 재위 9년(B.C. 588년), 유다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았을 때 시드기야 왕은 다급한 나머지 옥중의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역설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를 함락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요, 그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4-7절). 곧 “내가…친히 너희를 칠 것”(5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먼 북방 바벨론을 몰고 와 예루살렘을 포위토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를 치고자 드신 진노의 막대기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삼하 7:14). 그 도구는 참으로 무시무시했습니다. 교만한 유다의 뻗뻗한 목을 여지없이 꺾어 놓았습니다.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유다를 초토화 시켰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9절)고 권면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자신이 지은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깨닫고, 그 형벌을 순순히 달게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회복의 약속을 소망하고, 이제부터라도 회개와 진실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벌의 때에 올바른 자세는 그 형벌의 원인이 자신의 죄때문이요, 또한 그 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하게 깨닫는 자세입니다. 그래야만 형벌이 형벌로만 끝나지 않고, 연단을 이루어 마침내 십자가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렘 26:40-42).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렘 21:8)

기도 제목 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남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함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들의 존귀함과 영광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궁핍과 고통과 압제를 상징하는 황무함이었습니다(5절). 여호와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왕기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떠났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21절).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악행을 통렬하게 지적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듣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호야קים의 행동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만족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악행은 이방의 통치자들에게도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17절). 이러한 지적에도 왕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백향목으로 화려한 궁정을 짓는(15절) 외식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왕에게 의와 공평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진리인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확신한 일에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

기도 제목 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천교를 준비하는 모든 단기선교사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의로운 가지는 왕이 되어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5절).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께서 베푸시는 공의는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언도된 판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절대 왕권을 가지고 백보좌 심판대에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되, 절대적인 공의에 입각하여 판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가지가 임하는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성도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 날에 유다는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없는 안전한 상태 혹은 아무런 염려가 없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염려로 인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눈물과 위험과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 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드기야 시대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필요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레미아의 항복 권유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렘 27:12).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예레미아의 권유를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로,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 축복된 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간 자가 축복된 자요,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포로됨은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케 하고 또한 그들을 연단하여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기도 제목 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게도 심판이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과 바벨론이 심판당하게 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14절)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중반부(15-29절) 그리고 하나님의 전우주적 심판에 대해 전망하고 있는 후반부(30-3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6절).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귀로써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는 결국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대해 엄중한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명하고도 임박한 심판의 소식과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동산, 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부터 예레미야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본 장에는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 간의 충돌을 빚대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예레미야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꺾박하고 죽이려 하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1-7절)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고소 및 예레미야의 진술(8-15절), 그리고 삶과 죽음의 상황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16-24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사실대로 담대히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뜰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절기를 맞아 원근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이곳에서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시일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성소를 선택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백성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행 7:54-60). 본 장에서도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한다 하며 그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시 119:29)

기도 제목 ①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자신의 목에 걸고 예언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임박한 재앙에 관하여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다의 심판과 파멸을 예언해왔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즉위 초기에 주변 열국과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시드기야로 하여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반 바벨론 정책을 추진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유다를 멸망에 빠뜨림은 물론 그 또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압송되어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왕하 25:1-7). 하나님의 징계에 처한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전반부에서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의 상징을 통하여 바벨론에 의한 확연한 심판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며(1-11절),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12-22절). 또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가 속히 끝난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16-17절).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들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부추겨서 결국 바벨론의 맹렬한 공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는 말만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마 26:38)

기도 제목 ① 늘 깨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여 맑은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인 하나나와의 직접적인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주장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단정하였고 바벨론이 탈취해 간 성전의 기구들이 2년 내에 회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렸습니다(10절). 이러한 하나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예레미야는 쇠 멍에를 준비했고, 거짓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위하여 그가 조속한 시일 내에 죽을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는 그대로 시행되어 하나나는 죽고 말았습니다(17절).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누구의 말이 실현되느냐로 결정됩니다(9절).

당시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는 대단한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증거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나가 거짓 선지자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증거자는 환경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믿으며 바라볼 뿐입니다(딤후 1:10). 고난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기도 제목 ① 항상 깨어 복음을 증거하며 자랑스레 하소서. ② 예배위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의 심령이 보혈의 은혜로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는 포로들을 향한 권고(1-6절)와 포로들의 귀환에 관하여(10-19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비참한 장래에 관한 내용으로(20-32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며, 징계의 기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7절). 또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70년의 기한이 찰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나 거짓 예언자들이 발흥하여 유다 백성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소망에 사로잡히게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 처하게 하신 이유 즉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는 목적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70년간의 포로 생활 기간을 밝힘으로써 참된 근신과 회개의 날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로생활을 재앙으로만 받아들인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수도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선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눅 21:19)

기도 제목 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② 전 도위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중(A.D.61-63년경)에 에바브로디도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자신의 전도 사역을 도와주며 옥중에 갇힌 자신을 돌아본 데 대하여 감사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할 본분 중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비단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뿐 아니라 전 시대에 걸친 모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신 구속 사역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 얻을 충분한 기회를 얻게 하시고자, 사단과 세상에 대한 심판도 함께 유보하고 장구한 구속사가 현 세상에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이 모두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사단과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핍박과 그로 인한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도는 핍박이 올 때 영원한 구원을 기억하여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역사하시는 섭리에 순응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담대히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

기도 제목 ① 나 자신을 더욱 부인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비결로 겸손의 모본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이 되사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다 성숙된 삶, 곧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삶을 사는데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합니다(5절).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은 곧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고후 2:15). 뿐만 아니라 각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는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 곧 후사로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기도 제목 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먼저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당시 빌립보 교회를 영적·도덕적으로 혼란케 하던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이 잘못되었음을 경고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순전한 신앙 생활에 힘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자신도 육체를 신뢰했던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원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식적인 예배, 봉사, 헌신 등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잘못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전통, 관습, 가치관 등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그 어떠한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자신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사단이 어떻게든 성도들을 실족케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운데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며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복음의 진리를 혼잡케 하려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4)

기도 제목 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② 2006년도 단기선교 계획과 CMTC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변함없이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야 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처지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아무런 공로 없이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사실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가 적게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커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삶에 너무 빠지지 않고 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만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확고한 것임을 알아 어떠한 형편에서든 항상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핍박당할 수 있으나 그 같은 고난은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롬 8:18).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기도 제목 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늘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골로새는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로서 B.C. 5세기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때부터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과 발전은 교회가 사도의 개인적 권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달되었던 복음의 진리에 입각하여 설립,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요 1:3).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골 1:18).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이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게 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벗어나 화목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비밀을 안 사람은 이러한 비밀을 더 널리 전파함으로 다른 사람들 역시 구원으로 초대하는 일을 재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친척에게든, 이웃에게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땅 끝 복음의 불모지든 복음을 들고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4)

기도 제목 ① 구원의 복음에 대한 열정에 타오르게 하소서. ② 설에 만나는 모든 친척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교회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조직을 갖춘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교회에는 가라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구속의 진리를 거부케 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스스로의 주장을 마치 구원을 주는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써 교묘히 위장하여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꾀계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영적인 세력을 대적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원수의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강한 십자가의 군병은 어떤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굳게 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확고히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복음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미혹일 뿐입니다. 그 미혹은 이 땅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마 4:4).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빌 2:6,7)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소서. ② 22개 교회학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옛사람을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숙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성숙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지만, 스스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땅엿 것을 버리고 위엿 것만을 추구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며 위엿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몸은 죄악된 이 세상에 두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천국 시민이므로 천국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아담의 범죄 이후 온갖 죄악과 부패로 가득 찼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아는 자라 할지라도 생활 가운데서 자신을 방치하면 이와 같은 죄악된 환경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에 오염된 옛 사람을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 자신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잠 3:6).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골 3:2,3)

기도 제목 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엿 것만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복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본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당부와 인사로 글을 맺습니다. 끝을 맺으면서 눈에 띄는 것은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2,3절). 신앙의 용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왜 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요? 그것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열정을 지닌 바울과 그의 배후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세계적인 전파를 이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과 이를 이루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선한 열정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힘으로써가 아니라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야 할 공동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진리 역시 상호 공유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구속의 진리를 밝혀주는 당시 그리스도 사도의 서신이 널리 읽혀졌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의 도리로서 주어진, 진리의 성경 역시 널리 읽혀져야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읽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며 실천함으로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기도 제목 ①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일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과의 영적 교제

구역예배공과

1월 구역공과 초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지금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항상 참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신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증거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며 방황하지 말고 오직 천국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를 주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환란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생명까지라도 걸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집 필 초 점
0106	고후 11:12-15	교묘한 속임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
0113	신 2:1-3	땀도는 것을 멈추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0120	딤후 4:3-8	돌아보는 자의 비극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라
0127	고후 2:14-17	항상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1.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교묘한 속임수

| 초점 |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

| 찬송 |

찬송가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 본문 | 고린도후서 11:12-15

¹²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¹³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꾀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¹⁴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¹⁵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끔찍한 괴물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단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천사처럼 가장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고후 11:14).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믿는 자들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딤후 4:1 /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에서 떠나 □□케 하는 영과 □□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였으니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짓 교사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써 보세요.

딤후 6:3

사단은 교회의 모든 일에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거짓 교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면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어떻게 구별해 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거짓 교사의 속임수

※ 다음은 거짓 교사의 속임수입니다. 설교문을 참조하여 빈 칸을 채우세요.

1. 거짓 교사들은 에 대해 헛갈리게 만듭니다.
2. 거짓 교사들은 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을 통해 시비를 가립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축복과 성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고전 15:3-4

갈 2:21

고린도후서 11:3은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실제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항상 복음을 오염시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단순하고 순전합니다.

사단의 속임수

저것 교사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메시지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 “십자가는 성공이 아닌 □□이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성공, 축복과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며 정치적인 문제나 전문적인 강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땅에서 누릴 부와 명예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베드로는 참 신앙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는 사단에 의해 조종을 당하였습니다.

※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빈 칸을 채우세요.

예수님 :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마 16:21)

베드로 :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마 16:22)

예수님 :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마 16:23)

사단은 베드로에게 십자가가 무가치하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 속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천사의 위치에 서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일꾼

※ 보기에서 적당한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설교문 참조).

보기 / 권위 적인 존경 믿음 위선 분쟁

사단의 일꾼들 / 신자들 사이에 □□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면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일꾼들 /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의 □□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참 □□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단의 일꾼들 /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사단의 일꾼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고후 11:15

우리는 우리를 교묘히 속이는 사단의 일꾼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청결케 되어야 합니다.

약 3:17,18

예수님은 우리가 사단의 일꾼인지 아니면 은총의 일꾼인지 아십니다. 사단의 일꾼은 복음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은총의 일꾼은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합니다. 이들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자백합니다! /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나의 욕심대로 행하여 복음을 혼잡하게 했던 나의 생각, 말, 행동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결단합니다! / 삶 속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결단합니다. 결단의 내용을 써 보세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만 좇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과 동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결코 만만치 않은 속임수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소서.
2. 믿음으로 결단한 내용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소서.
3. 삶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일꾼 되게 하소서.

2과 맴도는 것을 멈추라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 찬 송 |

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 본 문 | 신명기 2:1-3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행하더니 ②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③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죄와 싸우면서 광야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십 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게는 없습니까?
묵상한 뒤 서로 나누어 보세요.

사십 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백성에게 하나님은 방향을 멈추고 북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기에서 골라서 써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보기/ 건강 믿음 협동 학력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앞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에도 넘어야 할 많은 영적인 산이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분노의 산

분노의 산은 무자비한 전투지입니다.

잠 18:19 /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같으니라

분노의 산은 어느 때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이 분노의 산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분노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시 119:165 / 주의 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이 있으니 저희에게
 이 없으리이다

중립의 산

중립의 산은 치열한 전투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 3:15,16)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가장 쉬운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태도가
아닌 중립적인 미지근한 행동은 죄를 낳고, 이것은 결국 마음을 부패시킵
니다. 적당히 행하려는 중립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마 24:12 / 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이 식어지리라

엡 5:14 /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불신의 산

불신의 산은 매우 위험천만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길을 잃고 맙니다. 어떤 상황들이 닥칠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01장 1절을 찾아서 써 보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 10:35 / _____

시 118:8 / _____

질투의 산

질투의 산은 격렬한 전투지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천국을 망각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때 베드로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써 보세요.

베드로 : _____ (요 21:21)

예수님 : _____ (요 21:22)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질투심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쏠리게 만듭니다. 질투의 산을 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산

가장 저대하고 강력한 산은 자존심입니다.

잠 16:18/ 은 패망의 선봉이요 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존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요일 2:15-17

정말로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롬 12:1,2).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요 17:16).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존심의 산을 넘어갑시다.

넘어야 할 산

출애굽한 이스라엘백성이 계속 주변을 맴돌았던 이유는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들은 그 여정에서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드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 16:24,25

십자가로 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맴도는 것을 멈추고 북으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 간다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천국에 가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맴도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설교문 참조)

2006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설교문 참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분노, 중립, 불신, 질투, 자존심의 산을 믿음으로 넘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케 하소서
3.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3과 돌아보는 자의 비극

| 초점 |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라

| 찬송 |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 본문 | 디모데후서 4:3-8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
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
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현재 교회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큰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눅 9:24-26

눅 9:62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딤후 4:3,4 /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에서 돌이켜 □□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더욱 근신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딤후 4:5 /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하여 □□을 받으며 □□인의 일을 하며 네 □□를 다하라

2006년 나의 전도 계획을 나누어 보세요.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사울 왕의 비극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출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의 욕망과 안락만을 추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삼상 15:11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조금 바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을 초래했고, 우리도 동일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룻의 선택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민족과 신에게 돌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룻은 선택했습니다.

룻 1:16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 경제능력이 없는 시어머니 곁에 남는 일은 잘못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룻은 이방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 1:5

기드온의 삼백 용사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및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동방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 삼만 이천 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것은 12만의 미디안 군대와 대항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삿 7:3 _____

_____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고 남은 자가 일만 명이었더라

삿 7: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_____

삿 7: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_____

_____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지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모두 떠났습니다.

요 6:66 / 제자 중에 ☐☐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 아니하더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눅 18:8 /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 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과 믿음에서 돌아설 때 우리는 지옥의 넓은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기도해 힘써야 합니다.

딤후 4:4,5

오직 말씀으로

사람들은 말씀 외에 천국으로 이끌어 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흥미로운 것들, 심지어 사단까지도 동시에 따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다른 종교나 세상적인 이념들을 혼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축복과 형통을 구하며 십자가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데마 / _____ (딤후 4:10)

롯의 아내 / _____ (창 19:26)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 6:24/ 한 사람이 ☐ ☐ ☐ 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 히 여기며 저를 ☐ 히 여김이라 너희가 ☐ ☐ ☐ 과 ☐ ☐ 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말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딤후 3:13-16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눅 9:23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생을 마칠 때에도 믿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영생과 함께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딤후 4:8

나의 생을 마감해야 할 때 내가 남길 유언을 써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처음 믿었을 때와 같이 믿음을 계속 지키십시오. 믿음에서 돌아서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 간절한 기도 |

1.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근신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2. 사울 왕과 롯의 실패가 아닌 기드온의 승리를 주소서.
3.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4과 항상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 초점 |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 찬송 |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같으니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본문 | 고린도후서 2:14-17

¹⁴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¹⁵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¹⁶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¹⁷우리는 수대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마음으로 路

현재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리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사단과의 영적싸움에서 '가끔' 또는 '자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합니다.

고후 2:14 /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경험한 승리와 실패담을 나누어보세요.

항상 승리하는 예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딤후 2:3

항상 승리하는 예수의 군사의 전신갑주!
엡 6:14-17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승리의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롬 8:37

눅 10:19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세상이나 지식, 혹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요일 44 / 자녀들아 너희는 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고전 15:57 / 우리 주 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일 55 / 예수께서 하나님의 을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는 사단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6:22 / _____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3:25,26 /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의
 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궁이 가까이 가서 불려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
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운데서 나온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절대 안전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은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골 3:3

속 4:6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후 2:15-17/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대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 안에 서 말하노라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광을 독차지하며 배우처럼 무대에서 돋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교회의 지도자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고후 4:7

요 15:5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흐려지며 혼잡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할 일은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잃지 마십시오.

히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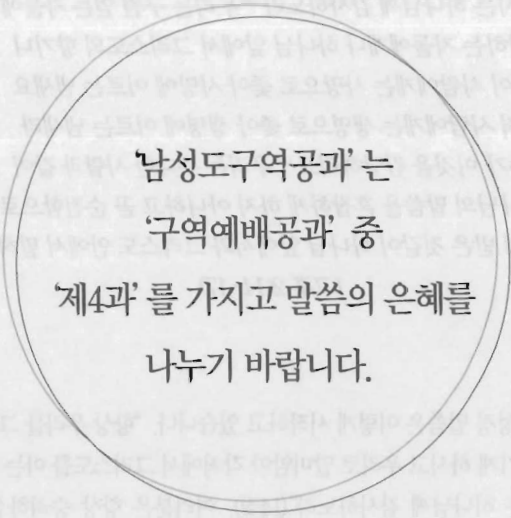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 보세요.

믿음이 바로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합시다.

| 간절한 기도 |

1.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2. 승리의 원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3. 참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남성도구역예배공과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¹⁴⁾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¹⁵⁾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¹⁶⁾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¹⁷⁾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후 2:14-17)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14절).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실패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항상 승리합니다. 기쁨 혹은 자주 승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 진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관점입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 중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의 연속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승리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야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일 매일의 삶이 전쟁입니다. 승리는 전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쟁이란 싸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를 얻으려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회심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참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항상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지를 찾나니”(벧전 5:8).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행운을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3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신자들의 대적, 사단의 군사들은 언제나 목숨을 걸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장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리, 평화의 복음,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라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엡 6:14-17). 주님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투에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

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9). 이 말씀을 믿습니까?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 4:4). 바울 또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만약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든다면 승리는 항상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 5:5).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세상이나 지식 혹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항상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사단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갔지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격렬한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 때 느부갓네살왕은 증언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단 3:25)!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골로새서 3:3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대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15-17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위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광을 독차지하며 배우처럼 무대에서 돋보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7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파괴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수많은 전쟁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진정으로 믿는 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물위를 걸을 수도, 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중현의 만나, 2008년 1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나 : 윤수일(1-7일), 최중철(8-15일), 이경준(16-23일), 장 훈(24-31일)

구역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 출판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1 전화 552-3200 | 비매품